

04. 근대 이전 사상과 문화

2

고려의 사상과 문화



오늘날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에 열리는 불교계의 큰 행사야.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되었지.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연등회가 국왕이 참석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매우 성대하게 개최되었어.

당시에 연등회가 단순한 불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로 열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수업을 배우면



고려의 사상과 문화의 특징을
사례를 들어 제시할 수 있다.

◎ 유교의 발달

(1) 유교의 중시: 국가의 정치 운영을 위한 기본 이념으로 중시

(2) 유학 교육의 진흥

① 교육 기관: 국립 교육 기관으로 국자감(중앙)과 향교(지방),

사립 교육 기관으로 사학 12도 등이 존재

② 과거제: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료로 선발하는 제도

●●사학 12도

고려 시대 개경에 있던 사립 교육 기관 12곳을 합쳐 부르는 명칭으로, 그중에서 최충이 세운 문헌공도가 특히 유명했다.

●●만권당

충선왕이 원의 수도 대도(베이징)에 세운 독서당이다.

이곳에서 이제현 등의 고려 유학자들이 원의 유학자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했다.

◎ 유교의 발달

(3) 성리학의 수용

성격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유학의 새로운 흐름, 철학적 성격이 강함.
수용	원 간섭기에 안향 이 소개 → 만권당 에서 고려와 원의 학자들의 교류 → 고려 말 성리학자들이 신진 사대부 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을 형성해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의 개혁을 주장함.

◎ 역사서의 편찬

고려 시대에는 유학의 발달과 함께 유교적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고려 중기에 김부식 등이 편찬한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토대로 서술되었다.

한편 무신 정변 이후의 사회 혼란과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고려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규보의 <동명왕편>,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이 대표적이다.

◎ 역사서의 편찬



《삼국사기》(경주 옥산 서원)
고려 인종 때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기전체 역사서로, 현재까지
전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삼국유사》(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일연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 등을 기록한 역사서로,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설정했다.

◎ 불교의 발달

- (1) 국가적 지원: 개경과 전국 곳곳에 사찰 건립, 연등회 · 팔관회 개최, 승과 실시 등

◎ 불교의 발달

(1) 국가적 지원: 개경과 전국 곳곳에 사찰 건립, 연등회 · 팔관회 개최,
승과 실시 등

●●고려 시대의 불교 사찰

개경과 전국의 각 고을에 세워진 크고 작은 사찰들은 신앙과 조상 숭배를 위한 공간이자 다양한 의례를 개최하는 공간이었다. 모아 둔 곡식과 재물로 굶주리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으며, 각종 물품의 생산이나 교역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고려 시대에 연등회와 함께 중요하게 개최된 국가 의례로,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 민간 신앙 등이 어우러진 행사였다. 또한 국왕과 외국 사신들이 만나는 공식적 외교 행사이자, 외국 상인들과 교역하는 경제적 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 승과

고려 시대에 승려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과거 시험으로,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나뉘었다.

◎ 불교의 발달

(2) 교종과 선종의 발달



대각 국사 의천(순천 선암사)



보조 국사 지눌(순천 송광사)

고려 전기

의천: 송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해동 천태종 창시,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 통합 노력, 송과 거란, 일본 등지에서 방대한 불교 서적을 수입하고 목록 작성

무신 정변 이후

- 교종 쇠퇴, 선종의 발전(무신 정권의 후원)
- **지눌:** 수선사(송광사)를 중심으로 불교계의 개혁을 위한 결사 운동 전개, 선종(분파 조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이론 체계 수립

◎ 불교의 발달

- (3) 불교계의 폐단: 고려 말 세속적 이익의 확대와 고리대 등의 폐단 심화
→ 성리학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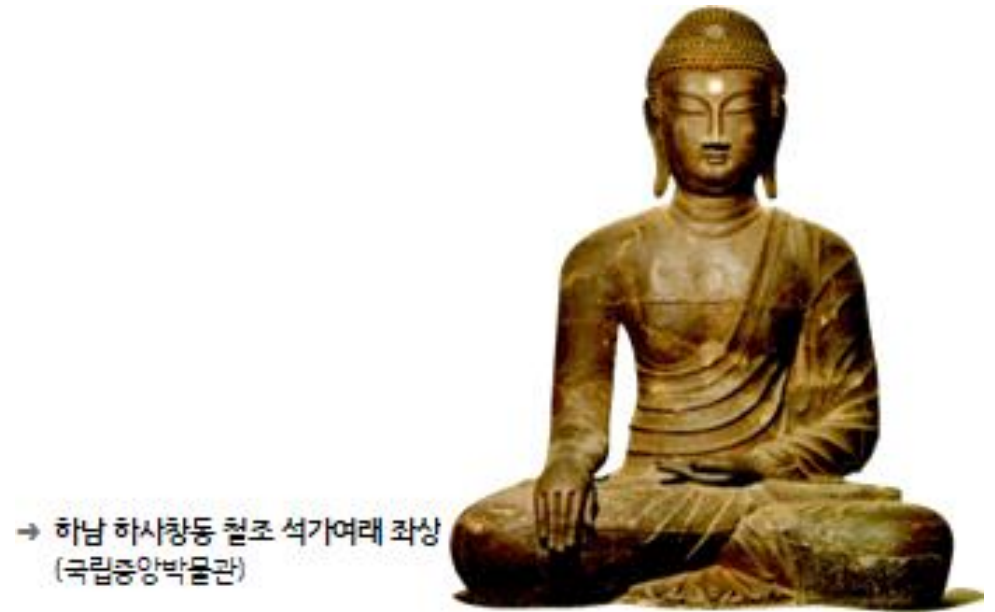
◎ 도교와 풍수지리설의 유행

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에서 도교 사원 건립, 도교 제사 개최 • 일관된 교리 체계나 교단 체제는 성립되지 않음.
풍수지리설	<p>태조의 <훈요 10조>에서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불교 사원을 지을 것을 강조, 숙종 때의 남경(서울)에 궁궐을 짓고 왕이 여러 번 행차함, 인종 때에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등과 같이 정치적 ·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침.</p>

◎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 불상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 지방색이 강한 거대한 크기의 석불



→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
(국립중앙박물관)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
: 통일신라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줌

◎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 목조 건축물

↓ 안동 봉정사 극락전(경북 안동)



안동 봉정사 극락전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경북 영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주심포 양식, 배흘림기둥을 채택해
안정감이 뛰어남

◎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 석탑



↑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강원 평창)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 다각 다층 형식



← 개성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석탑



← 원주 법천사지 지광 국사 탑(강원 원주)

승탑(선종의 유행, 고승의 묘탑)
원주 법천사지 지광 국사 탑

◎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 대장경

초조대장경 : 거란과의 전쟁 시기에 제작

팔만대장경

-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서, 몽골과의 전쟁을 이겨 내기 위해 제작
- 송 및 거란과의 교류를 통해 수입한 대장경의 내용을 참고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부족한 점을 채워 넣어 정확도와 완성도를 높임

부처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제작



↑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 경판
(경남 합천)

◎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 인쇄술

«상정고금예문»

: 1234년에 인쇄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현재 전하지 않음



«직지»

: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 고려청자



청자 참외 모양 병

: 고려 전기의 청자는
투명하고 맑은 비취색의 순청자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 고려 중기부터는 상감 기법을 이용해
화려하고 다양한 무늬를 지닌 상감 청자

◎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대장경	초조대장경(거란 침략), 팔만대장경(몽골 침략) 제작
인쇄술	《상정고금예문》(현재 전하지 않음.), 《직지》(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금속 활자본)
고려 청자	청자 참외 모양 병(순청자),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상감 청자)

◎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대장경	초조대장경(거란 침략), 팔만대장경(몽골 침략) 제작
인쇄술	《상정고금예문》(현재 전하지 않음.), 《직지》(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금속 활자본)
고려 청자	청자 참외 모양 병(순청자),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상감 청자)

◎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대장경	초조대장경(거란 침략), 팔만대장경(몽골 침략) 제작
인쇄술	《상정고금예문》(현재 전하지 않음.), 《직지》(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금속 활자본)
고려 청자	청자 참외 모양 병(순청자),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상감 청자)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고려는 국제적인 문화 교류 속에서 빛나는 문화를 꽃피웠다. 고려를 방문한 송의 사신 서긍이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자국에 소개한 것과 같이, 내가 고려를 방문한 외국인이 되어 고려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도자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 사람들은 비색(翡色)이라고 부른다. 근래에 들어서 만드는 솜씨가 교묘하고 빛깔도 더욱 좋아졌다. 술 그릇의 모양은 오이와 같은데, 위에 작은 뚜껑이 있고 연꽃이나 옆드린 오리 모양을 하고 있다.

- 서긍, 《선화봉사고려도경》 -

도움말

- 외국인인 나의 국적, 직업, 고려를 방문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 고려의 문화에서 한 가지 골라 그 특징과 사람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글을 쓴다.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저는 송의 상인으로 송의 비싼 물건을 팔기 위해 고려에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고려 사람들도 불교를 깊이 믿는다고 들어서, 고려에 가면 고려의 뛰어난 불교 건축물을 보고 싶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오대산 깊은 산속에는 월정사라는 고찰이 있고, 그곳에는 고려를 대표하는 석탑인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있습니다. 어렵사리 시간을 내 월정사에



예시 답안

고려의 불교문화와 예술

가서 8각 9층 석탑을 보니, 중국의 불탑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고려 특유의 균형미와 섬세함이 잘 표현된 뛰어난 작품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탑은 고려의 석탑 중 최고의 걸작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 절을 세우고 석탑을 건립한 점은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불교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 예시 답안



다음 시간에는

Ⅱ-04-3 조선 전기의 사상과 문화

단원을 배웁니다.

